

대행 스님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은 절대로 한계가 없다

신도1(여) … (녹음 안됨)

큰스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있는데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누구냐고요? 당신이지 누구예요? 일체만 생명이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공해서 이렇게 돈다고,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랬는데 내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남의 주인공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신도1(여) 근데 저는 기독교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요, 거기선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도 인간들의 죄가 많아서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스님 이거 보세요. 옛날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불이라는 건 어떠한 걸 뜻하겠습니까? 우리네 생명, 즉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심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은 개구리의 생명도 댁의 생명도 둘입니까, 하납니까?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깐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신도1(여) 아니, 그런데요, 쭉 캐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생겼을 때 그걸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관하세요. 그럼 댁이 어디서 온 걸 알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온 걸 알 테니까요. 우주의 근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댁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팡이 삼아서 모든 것을,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거기다가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자 공이니까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의정 나는 게 있으면 안으로 굴리면서 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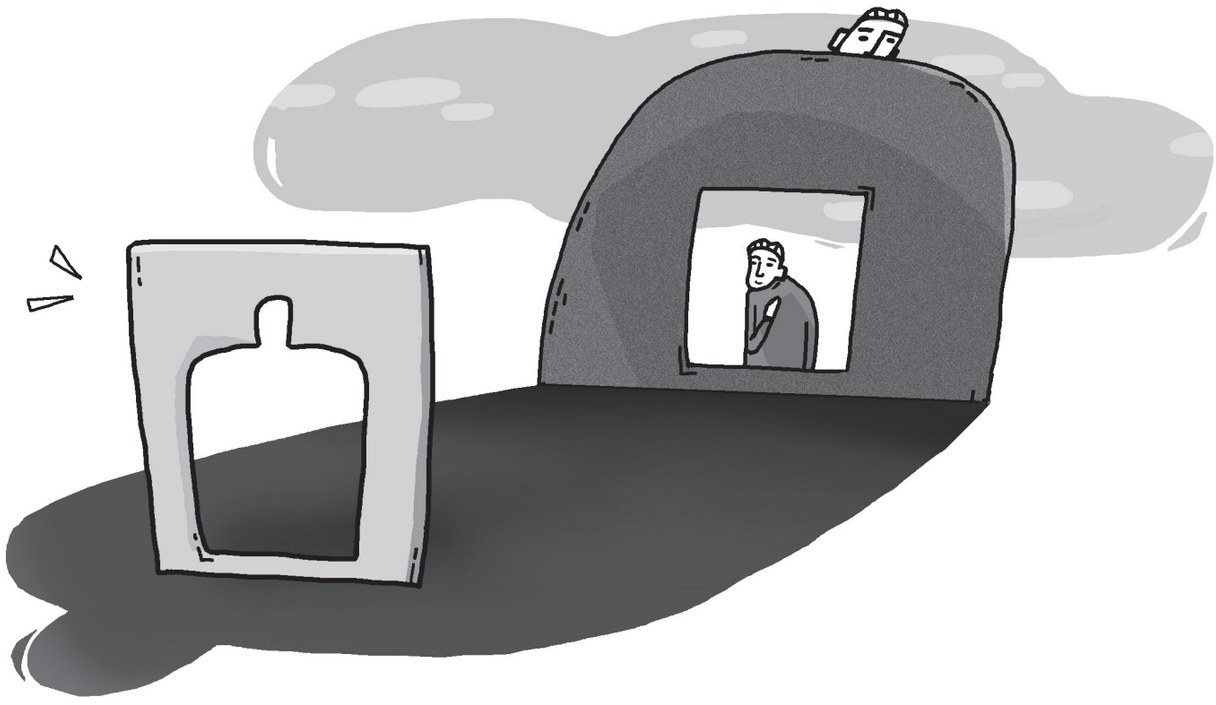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신도1(여) 그, 생각만 하면 그게 깨쳐지는 거예요?

큰스님 참…. 그 생각 모든 걸 전체 다 맡겨 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다 댁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참나가 어딨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그러고, 말로만 그냥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없이, 생각 자체를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나 드나 하여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일러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신도2(여) 부처님의 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은 삼라만상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돌고 도는 물과 같은 것이지마는 말 한 마디 규정해서 아퀴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서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 안다는 것을 세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화할 수 있으니 그것이…. (잠시 사이)

이전도 아니요, 이후도 아닙니다. 단지 화창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 돌 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근본, 근본" 하지만 모든 게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세울 게 없으니 어디로부터 세울 게 없는 게 생겨났는지…. 하여튼 모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자꾸 무르익어서 남이 먹기 참 맛있다고 하리만큼 익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 내가 한층 더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는 이것은 계단이 없으면서도 한 계단이 있고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려워라. 두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알고 두 번 죽어서 몰랐더니 세 번 죽고 보니까 알고 모르고 흔비백산이 돼 버렸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당치도 않은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줄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억겁을 거쳐서 진화가 돼서 나왔지마는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의해서 모든 게 귀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 콩씨였더니 오늘에 보니까 금방 콩나무가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억겁을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이 몸 하나 난 것이, 전체 그 습을 두리둥실 뭉수리처럼 다 짊어지고 안고 이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전자에 살던 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하면 여자의 행동을 하는 습을 가졌고, 남자라 하면 남자의 습을 가졌고, 또는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하면서 어른이라는 습을 가졌고, 또 어른을 보면 나는 젊은이라는 습을 가졌습니다. 살림살이의 모든 전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이날까지 살아온 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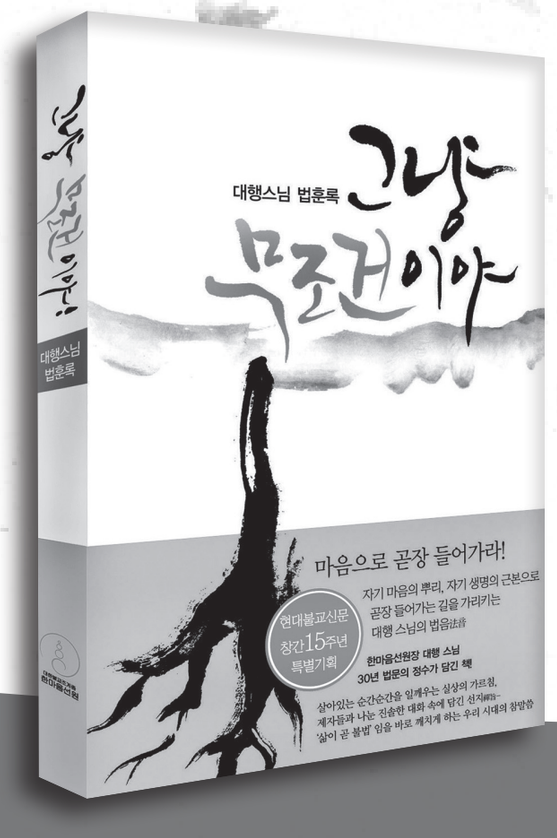
사람이라는 두 마디 글자는 똑같지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원이 똑같은 바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넝마도 있고 깡통도 있고 무쇠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서로 모이는 모임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자기의 습대로 자기 차원의 모임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자기 습에 의해서 인과를 짓고, 인과를 지음으로써 또 그 습을 떼지 못하면 그게 유전으로 변화하고, 유전으로 변화한다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아끼고 그러던 착을 둔 데에 유전성이 거기에 꼭꼭 붙어 돌아가고, 항상 얽히고설키고 그렇게 붙어 돌아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이렇게 여직껏 내려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이 습을 모두 뗀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공이요, 또는 내 몸도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붙을 데가 없는데 떼려고 하는 게 어디 붙을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거는 어딨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붙을 데가 없는데 뗄 것이 어딨겠느냐."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육조 스님은 "틀이 없는데 면경이 어딨으며, 면경이 없는데 때 앉을 게 어딨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일체 대의적으로 근본을 두고 말을 한다면, 근본 자체도 만약에 세울 게 없다면 그 소리는 상당히 누가 되는 문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래는 있다 없다가 흰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 사람의 그 생명이 있는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